

MY ST IC

BI RT HM

YS TI CB

IR TH MY

ST IC BI

RT HM YS

TI CB

Amorepacific Museum of Art Project 2017 jeju mystic birth

아모레퍼시픽미술관 현대미술프로젝트 APMAP

apmap(amorepacific museum of art project)은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다양한 현장을 순회하며 장소의 특성에 맞추어 매년 새롭게 기획된다. 전시의 주무대가 되는 야외 공간에서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이 지향하는 미(美)의 가치, 작가, 관람객이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광장을 만들어 나간다. 장소특정적 야외 설치 미술을 제작·전시하는 apmap은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공공미술의 활성화와 현대미술의 발전에 기여한다. 일상과 열린 공간으로 예술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보다 많은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술의 장(場)을 구축하여 현대미술의 미래를 'mapping' 하고자 한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었던 apmap part I은 전국을 순회하며 작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아모레퍼시픽의 여러 사업장에서 펼쳐졌다. 2013년 오산의 '아모레퍼시픽 뷰티 캠퍼스'에서 개최된 reverscape는 일상공간이 어떻게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보여주었다. 2014년 제주의 '서광다원'에서 개최된 between waves는 제주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로 관람객의 감성을 자극하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2015년 용인의 '아모레퍼시픽 기술 연구원'에서 개최된 researcher's way는 아름다움을 비롯한 소중한 가치와 이를 위한 기술과 욕망에 대한 사색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2016년 서울의 '용산가족공원' 및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현장'에서 개최된 make link는 두 개의 장소를 개념적으로 연결함과 동시에, 예술작품을 매개로 용산 지역의 과거 - 현재 - 미래, 도시 - 자연 - 사람을 적극적으로 소통시켰다.

2017년부터 시작되는 apmap part II는 4년간 제주도에서 펼쳐진다. 참여작가들은 제주의 여러 장소들을 돌아다니며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어 작품을 제작하고 현장에 모여 미술품을 설치한다.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 속에 작품을 전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를 현대미술의 새로운 성지로 변화시키고 그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그 첫해인 2017년은 오설록 티뮤지엄 일대에서 개최하며, 2020년까지 4회의 전시를 통해 제주의 탄생, 자연, 삶, 예술 등 여러 요소를 재해석한 작품들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오설록 티뮤지엄

제주 오설록 서광차밭과 맞닿아 있는 오설록 티뮤지엄은 아모레퍼시픽이 차 문화를 소개하고, 널리 보급하고자 2001년 9월에 개관한 국내 최초 차 전문 박물관이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문화공간으로 차 전시관과 자연친화적인 휴식 공간이 어우러져 있으며, 2013년에는 티 클래스를 더해 21세기형 차 박물관으로 발돋움하였다. 세계적인 디자인·건축 분야 전문가인 '디자인붐'이 선정한 세계 10대 미술관에 오를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선보이는 오설록 티뮤지엄은 연간 15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제주 최고의 명소이자 문화 공간이다. 앞으로도 오설록 티뮤지엄은 'Tea Culture Creator'로서의 소명을 갖고 한국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차(茶) 문화와 역사를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AMOREPACIFIC MUSEUM OF ART PROJECT APMAP

APMAP is a public art project organized by the amorepacific museum of art (apma). Presented at a different location in South Korea each and every year, this annual project is to be tailored to the unique specificity of the location. Taking an outdoor space as its focal exhibition space, APMAP creates a platform where the aesthetic functions of art pursued by the museum, artists, and viewers can interact and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The main objectives of APMAP lie in seeking out and supporting young artists and contributing to the vitalization of the practice of public art and the growth of contemporary art. While concentrating on the commissioning and showcasing of site-specific outdoor installation works, APMAP aims to map the future of contemporary art by extending the ambit of art into everyday life and spaces without walls and by designing a new arena of art that enables a more intimate and wider interface between art and its audience.

Conducted annually from 2013 to 2016, APMAP part I was presented in different locations of AMOREPACIFIC throughout South Korea. APMAP part II is to be presented for the period of four consecutive years starting in 2017. The participating artists are to conceive ideas for and produce their works by visiting various places throughout Jeju. The main intent behind this exhibition project is to establish Jeju as a new mecca for contemporary art by showcasing works of art within the beautiful natural surroundings of Jeju where they can be introduced to many domestic and foreign viewers. The venue for its first show in 2017 is the premises of OSULLOC Tea Museum. Consisting of four shows until 2020, part II seeks to interact with a much larger audience via the artworks that reinterpret the diverse facets of Jeju: its formation and nature, life in Jeju, and the art of Jeju.

OSULLOC TEA MUSEUM

OSULLOC Tea Museum is right next to OSULLOC Seogwang Tea Garden in Jeju. It is Korea's first museum specialized in tea and was opened in September 2001 by Amorepacific to introduce and spread tea culture. It is a cultural space bringing together East and West as well as tradition and modernity. It is an eco-friendly rest area as well as a tea exhibition hall, and began holding tea classes in 2013, making it a 21st-century tea museum. With its beautiful view, OSULLOC Tea Museum was selected as one of the world's top 10 museums by Designboom, a world-renowned online magazine for design and architecture. It is the most popular tourist attraction and cultural space in Jeju, visited by 1.5 million people every year, and was acknowledged for its contribution to development of regional tourism based on Jeju green tea.

EUNU LEE HYUNGSHIN HWANG
MONOCOMPLEX DAE SONG LEE THE UNIT
JOON KIM SOJUNG LEE
YEJOO PARK STPMJ
JIHYUN BOO + YONGHOE CHO
MINSEOP YOON HEEYOUNG KIM
UJOO + LIMHEEYOUNG
OH YOU KYEONG HYUNMO KOO OAA

도슨트 투어

전시기간 내 비정규적으로 운영, 현장 안내 예정
(폭염, 우천 등의 사정을 고려해 당일 현장 상황에 맞게 운영)
시작장소: 오설록 티뮤지엄 로비
소요시간: 약 30분

이벤트

1. 블로그 포스팅
전시장 풍경을 블로그에 포스팅
2.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전시장에서 찍은 인증샷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apmap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기간: 2017년 7월 8일 ~ 9월 3일
참여방법: 미술관 이메일로 이름 / 등록일 / 연락처 / 블로그 URL 또는 인스타그램 아이디 전송
추첨을 통해 전시 기념품 증정
당첨발표: 2017년 9월 15일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전시정보

전시기간 2017년 7월 8일 ~ 2017년 9월 3일
전시장소 오설록 티뮤지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15
관람시간 월요일 ~ 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휴관일 전시기간 중 무휴
입장료 무료
단체관람 미술관 문의

INFORMATION

Periods 8 July ~ 3 September, 2017
Location OSULLOC Tea Museum
15 Sinhwayeoksa-ro Andeok-myeon,
Seogwipo-si, Jeju-do
Hours Monday through Sunday, 9 AM to 6 PM
Admission F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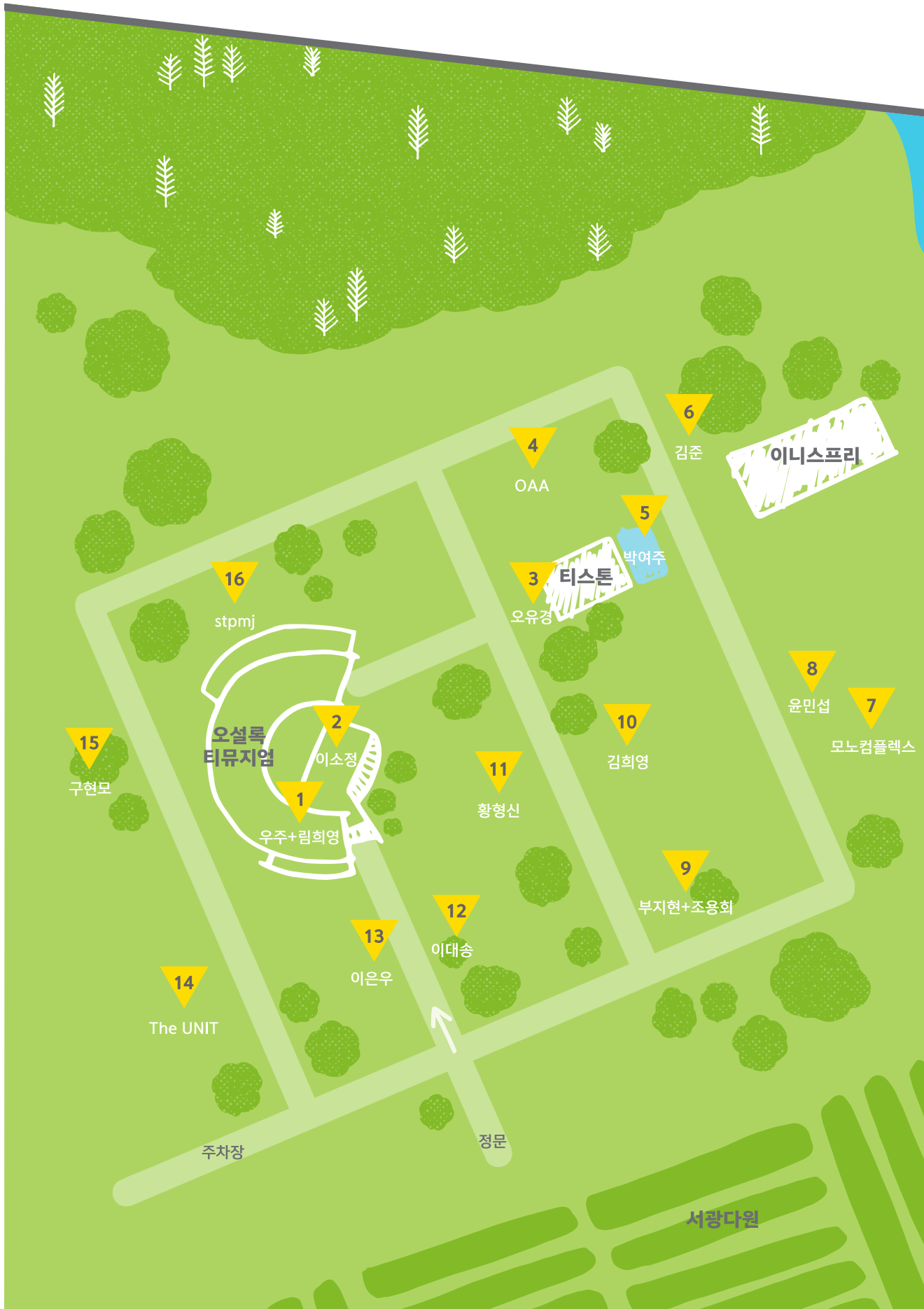
TEL 031 280 5586

EMAIL museum@amorepacific.com

HOMEPAGE museum.amorepacific.com

주최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오설록 티뮤지엄

Organized by Amorepacific Museum of Art, OSULLOC Tea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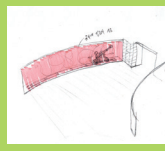


전시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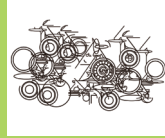
apmap part II의 첫 번째 전시는 제주의 여러 요소들 가운데 제주의 탄생과 관련된 '설화'를 주제로 삼는다. 16팀의 참여작가들은 제주의 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장소에 얽힌 설화를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미술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제주에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신화와 전설은 제주라는 섬의 신비로운 탄생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며, 오랜 기간 육지와 떨어진 곳에서 살아온 섬사람들의 염원을 내포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오설록 티뮤지엄의 실내 및 야외 공간에 설치된 작품들과 소통하고, 제주의 탄생과 관련된 여러 장소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제주도라는 지역을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mystic bi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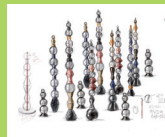
APMAP 2017 jeju, the first show of part II, deals with the tales related to the birth of Jeju. The 16 participating artist groups delve into the tales of different areas of Jeju and reinterpret them into artworks. These works inspired by numerous myths and legends passed on in Jeju embody the mysteriousness of the birth of Jeju and simultaneously the aspirations of those islanders who led a life far from land. This show enables viewers to interact with the works installed in both indoor and outdoor spaces and to have indirect encounters with various places related to the birth of Jeju.



1 우주+림희영 <붉은 빛을 내는 기계> 2017 스틸, 알루미늄, 마이크로 프로세서, DC 모터, 조명 장치, 레일 / 190x230x88.5cm
1 UJOO+LIMHEEYOUNG *Red Lighting Machine* 2017 / steel, aluminum, microprocessor, DC motor, light, rail / 190x230x88.5cm



2 이소정 <-1>, <+1> 2017 시트지 332x1899cm / 207x640cm
2 SOJUNG LEE <-1>, <+1> 2017 PVC sheet 332x1899cm / 207x640cm



3 오유경 <바람의 탑> 2017 스테인리스 스틸에 우레탄도색, 크리스탈 구, 나무 가변크기
3 OH You kyeong *Pagoda of Baram* 2017 stainless steel urethane paint, crystal ball, wood / dimensions vari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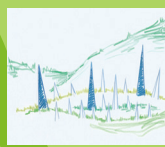
4 OAA <근원, 원형, 바램> 2017 금속, 목재, 이끼, 물안개 240x180x180cm
4 OAA *Origin, Archetype, Belief* 2017 steel, wood, moss, water mist 240x180x180cm



5 박여주 <여신의 다리> 2017 아크릴, 레이저컷 라이트 필름, 스테인리스 스틸 가변크기
5 Yeojoo Park *Bridge of the Goddess* 2017 acrylic, radiant light film, stainless steel dimensions vari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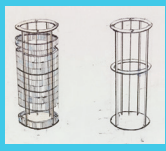
6 김준 <소원당-소원을 빌다> 2017 혼합재료(나무, 스피커, 앰프, 8채널 사운드) 가변크기
6 Joon Kim *Shrine - make wishes* 2017 mixed media(wood, speaker, amplifier, 8ch sound) / dimensions variable



7 모노컴플렉스 <놀> 2017 슈퍼미러 스테인리스 스틸 / 250x400(h), 250x600(h), 300x800(h), 450x1200(h)cm
7 MONOCOMPLEX *wave* 2017 super mirror stainless steel / 250x400(h), 250x600(h), 300x800(h), 450x1200(h)cm



8 윤민섭 <소녀 1>, <소녀 2> 2017 철 / 100x190cm(소녀), 43x45cm(민들레) / 82x190cm(소녀), 50x45cm(민들레)
8 Minseop Yoon *Girl 1, Girl 2* 2017 steel / 100x190cm(Girl), 43x45cm(Dandelion) / 82x190cm(Girl) 50x45cm(Dandelion)



9 부지현 + 조용희 <궁극공간> 2017 프리즘, 아크릴, 철에 우레탄도장, LED 150(dia.)x300cm
9 JIHYUN BOO+YONGHOE CHO *Ultimate Space* 2017 / prism, acrylic, steel, LED 150(dia.)x300cm



10 김희영 <영실기암_스틱> 2017 도자, 철 가변크기
10 Heeyoung Kim *Yeongsilgiam_stick* 2017 ceramic, steel dimensions variable



11 황형신 <실심의 뱀> 2017 탄브라운 화강암 가변크기
11 HYUNGSHIN HWANG *Infinite Sadness* 2017 tan brown granite dimensions variable



12 이대송 <형성 - 물, 바람, 중력> 2017 면사, UV 펄 안료 코팅, 폴리 비닐 아세테이트, 크리스탈 레진 굳힘 / 560x210x560cm
12 Dae Song Lee *Forming - Water, Wind, Gravity* 2017 / UV pearl coated cotton rope with polyvinyl acetate and crystal resin forming / 560x210x5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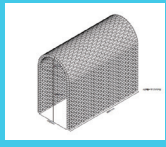
13 이은우 <꽃> 2017 폴리에스터 레진, 파이버 글라스, 우레탄 페인트, 철, 시멘트 / 60x160x140cm
13 EUNU LEE *Flowers* 2017 polyester resin, fiber glass, urethane paint, steel, concrete / 60x160x140cm



14 The UNIT <Followers> 2017 황동 주물 까마귀에 금박, 철근콘크리트 캐스팅, AR쌍안경 / 300x140x45cm
14 The UNIT *Followers* 2017 gilded crow after brass casting, reinforced concrete casting, AR binoculars / 300x140x45cm



15 구현모 <후박나무> 2017 알루미늄, 우레탄 클리어 980x900x900cm
15 Hyunmo Koo *Machilus* 2017 aluminum, urethane clear 980x900x900cm



16 stpmj <죽아내리다> 2017 압염 240x120x300cm
16 stpmj *DISSOLVING WALL* 2017 salt brick 240x120x300cm